

다문화 시대 한국 대학의 역할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과 교육 혁신-

김정훈 · 김태식*
(국립창원대학교)

1. 서론
2. 다문화사회와 한국 대학의 교육적 역할
3. 유학생 증가와 교육 환경 변화
4.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해외 사례 분석
 - 4.1.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운영 모델
 - 4.2. 해외 유학생 전용 학부 사례와 한국 대학의 시사점
5.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의 융합 가능성
 - 5.1.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의 접점
 - 5.2. 유학생 전용 학부의 다문화 공존 및 학습 환경 영향
 - 5.3.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 방향 및 설립 가능성
6. 결론 및 정책 제언

국문초록

한국 대학의 다문화적 환경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학업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 제1저자: 김정훈, 교신저자: 김태식

본 연구는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역할을 분석하고, 다문화 공존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유학생 전용 학부와 같은 모델이 유학생의 학문적 성취, 사회적 통합,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대학의 유학생 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 전용 학부가 한국 대학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문화 교육, 유학생 전용 학부, 유학생 지원 정책, 국제 학생 교류, 고등교육 국제화

1. 서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글로벌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대학의 역할과 교육적 책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내 다문화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3).¹⁾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대학에서 가장 큰 외국인 학생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교육부, 2023).

유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육 체계는 여전히 내국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유학생들이 입학 이후 직면하는 학업 및 생활 적응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

1) 이 수치는 2013년 대비 유학생 수가 두 배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증가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Study Korea' 프로그램을 통한 유학생 지원 확대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분의 한국 대학은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국제 교류 협력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실제로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제한적이다. 또한, 대학 내 다문화적 환경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상호 교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유학생들의 문화적 소외감과 학업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과 학업 적응 문제이다.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업 이해도가 낮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어 기반 강의가 대부분인 전공 수업에서 유학생들은 교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론 및 발표와 같은 학습 활동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한국고등교육연구소, 2022).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일부 유학생들은 학업 포기 및 조기 귀국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수업 방식과 평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며, 교수-학생 간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 대학이 내국인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학사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한다(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21). 또한,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규범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대학의 다문화 교육 체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학생 전용 학부의 도입이 점차 논의되고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는 유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유학생들끼리 학업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유학생들을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전용 학부를 다문화 교육 및 글로벌 학문적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내 다문화 공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유학생 전용 학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대학교(NYU)는 Liberal Studies Program을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호주의 University of Melbourne은 Trinity College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양 교육을 제공하며, 유학생 전용 강의를 개설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와 와세다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수의 국제학부(Global College 형태의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이 한국어 및 일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중언어 학습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22). 이러한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학이 유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 내 유학생 전용 학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의 융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 대학의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런 모델이 유학생들에게 어떠한 학문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유학생 전용 학부 도입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학생 전용 학부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학습 및 연구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

하는 학습 모델이 정착될 경우, 이는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생 전용 학부가 갖는 다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와 한국 대학의 교육적 역할

한국 사회는 급속한 글로벌화와 인구 이동의 증가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육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대학은 이제 단순한 지식 전수 기관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내국인 학생들의 국제적 경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 대학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다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지식과 학문이 더 이상 단일한 국가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은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학문적 영역을 넘어 대학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은 한국 대학의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대학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외국인 학생의 수를 늘리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내국인 학생들과의 학문적·문화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한국 대학의 다문화 교육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과정 이 내국인 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수의 유학생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공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교수와의 소통이나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공에 따라 영어 강의를 개설되는 비율이 다르며, 유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언어적 장벽은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도 대학 내 다문화적 환경 조성의 주요한 장애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자연스럽게 내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학생들은 주로 같은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언어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 프로젝트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유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운영 철학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은 특정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필수 교과 과정에 다문화 관련 강의를 포함하고, 교직원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수를 정례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문화적 감수성을 대학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대학이 다문화 사회에서 효과적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유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

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문적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전공에서 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과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학문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히 국제 교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강의와 연구 활동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공동 연구 프로젝트나 글로벌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도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문화적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이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단순히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비자 문제, 취업 기회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 등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대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교육적 역할은 단순히 유학생을 위한 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 과정 개편과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학문적 교류를 유도하는 것은 한국 대학이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학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다문화 교육은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학문적·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 유학생 증가와 교육 환경 변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의 경계 또한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 교육은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국민 중심의 체계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국경을 넘어 학문을 탐구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움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대학도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며 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증가가 대학의 발전과 다문화적 환경 조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교육 체계와 충돌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유학생의 학문적 성취와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 증가가 한국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의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삼았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학금, 기숙사 제공, 언어 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에만 집중할 나머지 이들의 학업 적응과 정착을 돕는 교육 환경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학생 증가가 한국 대학의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우선, 강의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수 중심의 강의 방식이 일반적이며, 학생들의 참여보다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보다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 환경을 필요로 하며, 교수와의 소통이나 학생들 간의 협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교육부, 2023). 따라서 토론식 수업, 문제 해결 중심 학습(PBL), 실험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하여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수업 방식

이 내국인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만큼, 교수들도 다문화적 교육 역량을 키워야 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학생 증가로 인해 대학의 언어 환경 또한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강의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학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전공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 강의를 제공된다고 해도 모든 유학생이 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²⁾ 따라서 단순히 영어 강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전공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보조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튜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단기적인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유학생들이 전공 수업에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방식의 변화 또한 요구된다.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평가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술형 시험이나 논문 작성, 팀 프로젝트 등의 평가 방식이 자국에서 익숙한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 장벽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고, 단순한 필기시험이 아닌 다양한 평가 방식(구술 발표, 프로젝트 수행, 사례 연구 등)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생 증가로 인해 대학 내에서 학생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대학 생활 중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관심사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유학생들은 같은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2)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Academic Korean' 과정과 영어 강의를 확대하고 있으나, 전공 수업에서의 언어 장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더 편하다고 느끼며, 내국인 학생들 역시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다문화적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 교류 행사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단순한 친목 행사보다는 학문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문화 학습 그룹을 운영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학생 증가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지원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들이 입학한 후의 지원 체계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유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비자 연장 문제, 숙소 확보, 의료 서비스 이용, 아르바이트 및 취업 연계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대학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행정 부서를 운영하고, 이들이 학업과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생 증가가 대학의 교육 환경에 미치는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혁신과 연계되어야 한다. 유학생의 증가가 교육과정 개편, 강의 방식 개선, 평가 체계 다변화, 학생 간의 교류 활성화, 행정 시스템 개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 이는 대학이 더욱 국제적이고 포용적인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대학이 유학생 증가를 단순한 숫자의 변화로 바라보지 않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유학생 증가는 한국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치 전략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과 다문화적 환경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단순한 학위 취득의 장소가 아니라, 세계적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은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은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선진 교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해외 사례 분석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학의 역할과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유학생 수의 증가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보다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그러나 유학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학문적 성취와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언어적·문화적·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국민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온 한국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유학생들이 학업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많은 해외 대학들은 유학생 전용 학부를 운영하여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는 단순히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유학생들이 학업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러한 학부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학위 과정으로 운영되거나, 기존 학부와 연계하여 유학생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해외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 전용 학부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 대학이 유학생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이 대학 내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운영 모델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주요 대학 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이 유학생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4.1. 유학생 전용 학부의 개념과 운영 모델

유학생 전용 학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학부 형태이다. 기존의 대학 시스템이 내국인 학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유학생 전용 학부는 유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부는 언어 교육, 학습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전공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 방식은 대학의 교육 철학과 유학생 유치 전략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크게 독립형 모델과 통합형 모델로 구분된다. 독립형 모델은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되며, 유학생 전용 커리큘럼과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서는 유학생들이 초기 학문적 적응 단계를 거친 후 본과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유학생 전용 학부 내에서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유학생만을 위한 강의 운영, 언어 교육과 학습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 유학생 대상의 전담 행정 시스템 운영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반면, 통합형 모델은 기존 대학 내 학부와 연계하여 운영

되는 방식으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학생들은 일반 학부 과정에 포함되지만, 유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이 모델에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같은 강의를 수강하되, 유학생을 위한 보충 강의나 학습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언어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튜터링 시스템과 전공 용어 설명 강의를 함께 제공되며, 내국인 학생과의 공동 프로젝트, 멘토링 시스템, 다문화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학문적·사회적 교류를 유도한다. 이 방식은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학습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이 부족할 수 있으며, 언어적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의 방식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연구 중심 교육, 다문화 협력 학습을 강화하여 유학생들의 학문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과의 연계 인턴십, 취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체 협력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으며 글로벌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유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복지 지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낯선 환경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내 유학생 상담 센터,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공동체 형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이 유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때, 유학생 전용 학부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전용 학부는 단순한 학문적 교육 공간이 아니라, 언어, 학업, 생활, 문화 적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 방식에 따라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나뉘지만, 궁극적으로 유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한, 대학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고, 글로벌 연구 및 협력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해외 유학생 전용 학부 사례와 한국 대학의 시사점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국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과 같은 고등교육 선진국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 학부를 운영하거나, 기존 학부 내에서 유학생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과 성취를 돕고 있다. 이러한 해외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부 운영 방식은 대학의 교육 철학과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언어적·문화적·학문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대학 내 다문화적 학습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NYU)의 Liberal Studies Program과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Global Edge 프로그램이 있다. NYU의 Liberal Studies Program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내국인 학생도 포함하는 융합형 학부로, 학생들이 교양 중심의 학문적 기초를 다진 후 특정 전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뉴욕대학교, 2022). 이 프로그램에서는 철학, 역사, 문학 등의 기초 학문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C 버클리의 Global Edge 프로그램은 신입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교육 방식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첫 학기를 해외 캠퍼스에서 시작하여 기초 학문을 학습한 후 본교에서 전공 과정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버클리대학교, 2022).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연구 및 작문 능력을 익히고, 교수진 및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습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호주에서도 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University of Melbourne의 Trinity College와 Monash University의 International College가 있다. University of Melbourne의 Trinity College는 유학생들이 본과 과정에 진입하기 전 학문적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는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수업과 함께, 학문적 작문 및 연구 방법론, 기초 수학 및 과학 교육을 제공한다(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특히, 호주의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자국의 교육 방식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Monash University의 International College는 유학생들이 대학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개별 학습 상담을 제공하며, 학부 과정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에게 멘토링 시스템과 튜터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호주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호주의 산업 및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대학교의 PEAK(Programs in English at Komaba) 프로그램과 와세다대학교의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SILS)가 대표적인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사례로 꼽힌다. 도쿄대학교의 PEAK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 학사 과정으로, 국제 문제와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도쿄대학교, 2021). 특히, 일본의 문화와 경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수업이 포함되어 있어 유학생들이 일본 사회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학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³⁾ 와세다대학교의 SILS는 일본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학생 전용 학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다국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학부는 영어 및 일본어 혼용 수업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이 일본어를 학습하면서도 전공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본 기업 및 국제 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 이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와세다대학교, 2020). 일본 대학들은 유학생의 정착과 취업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대학들의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 대학이 유학생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해외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전공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기초 학문 교육과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대학도 단순히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문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등이 포함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활성화하여 유학생들이 대학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SILS와 같은 프로그램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협력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의 졸업 이후 진로를 고려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대학들은 기업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유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3) PEAK 프로그램은 영어권 유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과정에서는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SILS는 일본어 및 영어 혼용 수업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의 일본어 습득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대학들도 유학생들의 취업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유학생 유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 개개인의 학문적 성장과 사회적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대학은 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교육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의 융합 가능성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가치를 포용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학생 증가로 인해 대학 내 다문화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지만,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학문적·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업 적응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을 융합하면 보다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내국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로벌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내국인 학생도 유학생과 협력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아직 유학생을 위한 별도 학부 운영이 미흡하며,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학문적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은 다문화 교육을 전공 과정에 포함하고,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간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⁴⁾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4)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

교육의 융합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사회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1.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의 접점

유학생 전용 학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육 모델이다. 반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문화 간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지만, 유학생 증가로 인해 대학 내 다문화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교육 모델은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의 접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유학생 전용 학부는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내국인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다문화 학습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학생은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유학생은 보다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개념인 상호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별도로 교육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학생들의 학문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대신, 다문화 교육의 철학을 적용하여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협력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세미나, 다국적 팀 프로젝트, 문화 교류 활동을 포함하는 통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랩'을 도입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생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셋째, 유학생 전용 학부가 단순한 학문적 공간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과 다문화적 사고를 함양하는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강조하는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가치를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모두가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을 전공 및 교양 과정에 포함하고,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학생 전용 학부와 다문화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접목하면 대학 내에서 더욱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다문화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5.2. 유학생 전용 학부의 다문화 공존 및 학습 환경 영향

유학생 전용 학부의 도입은 대학 내 다문화적 공존을 촉진하고 학습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은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내국인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학습적·사회적 교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유학생들은 주로 별도의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며 대학 공동체 내에서 독립적인 그룹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사이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문화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 대학 내에서 다문화 공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유학생 전용 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식을 통해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이 보다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다문화

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특정 국적의 학생들만 모이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다문화적 학습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내국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적 학습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협력적 문제 해결 학습과 같은 교수법을 적용하면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내국인 학생들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글로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배경과 학습 스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강의 자료를 다국어로 제공하거나,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다문화 공존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다문화적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학문적 토론을 하고,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또한,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제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실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국제적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이 세계적인 학문적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학습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도입되면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으며,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다국적 강의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학습 스타일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의 중심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인 학습 방식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필수적이며, 유학생 전용 학부를 통해 이러한 교육 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과정에서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간의 학문적·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내국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대학 공동체에 융합될 수 있으며 내국인 학생들 또한 글로벌한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다국적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문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내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다문화 공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학습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세미나를 개설하거나,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상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다문화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 다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경영, 글로벌 시민교육, 국제 관계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다문화 환경에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문화 동아리 및 국제 연구팀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서로를 멘토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 전용 학부는 대학 내 다문화 공존을 촉진하고 학

습 환경을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국제적 감각과 협력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학생 전용 학부는 단순한 유학생 지원 기관이 아니라,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학습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학생 전용 학부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대학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5.3.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 방향 및 설립 가능성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 방향과 설립 가능성은 대학이 국제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설립은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는 기존 학부와는 차별화된 학문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과정의 유연성과 다양성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와 교육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언어 능력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학생들이 대학의 정규 전공 과정에 진입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기초 학문 및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 과정(Foundation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학문적 글쓰기, 연구 방법론, 토론 및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대학 본과

과정에 진입하기 전 충분한 학업 준비를 마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내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학생 전용 학부의 운영은 단순한 언어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전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학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학생 전용 학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본인이 원하는 학부 또는 전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트랙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전용 학부 내에서도 국제 관계학, 경영학, 공학, 한국학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전공을 개설하여,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전문적인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단순히 언어적 차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 학습 스타일의 차이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진이 다문화 교육 방법론을 숙지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유학생 전용 학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적응뿐만 아니라 생활적, 정서적 적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유학생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 지원 및 법적·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지원, 유학생 전용 장학금 운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설립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유학생 유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국제 학생들에게 비교적 낮은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유치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유학생의 유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설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교류 활성화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고립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국인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교내 국제 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링 제도,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내국인 학생들도 글로벌 감각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 전용 학부는 단순한 유학생 지원 기관이 아니라, 한국 대학이 국제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유연한 학제 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다문화적 교수법, 생활 지원 시스템을 갖춘 유학생 전용 학부가 구축된다면,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유학생 전용 학부는 한국 대학이 글로벌 학문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설립과 운영은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히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내국인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학제 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언어 및 문화 적응 지원, 다문화적 교수법 도입,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도 많다. 첫째,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학생 대상의 학습 지원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대학 내에서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연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교육, 인턴십, 취업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전용 학부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다문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 대학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전용 학부의 설립과 운영이 단순한 유학생 지원을 넘어, 다문화 공존과 글로벌 학문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 2023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 조사 보고서.
- 뉴욕대학교(2022). Liberal Studies Program Overview, NYU 공식 웹사이트.
- 도쿄대학교(2021). PEAK(Programs in English at Komaba) 프로그램 개요, 도쿄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보고서.
- 버클리대학교(2022). Global Edge Program: A Pathw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UC Berkeley Admissions Report.
- 와세다대학교(2020). School of International Liberal Studies (SILS) 프로그램 소

- 개, 와세다대학교 국제학부 보고서.
한국고등교육연구소(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교육 환경 분석. 한국고등교육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 조사 보고서. 교육부 정책자료.
호주 교육부(2021). 유학생 지원 정책 및 대학의 역할, 호주 고등교육 정책 보고서.
Melbourne University(2023). Trinity College Foundation Studies: Program Overview, University of Melbourne 공식 웹사이트.
Monash University(2022). Monash International College Program, Monash 공식 웹사이트.

필자 소개

성 명 김정훈
소 속 국립창원대학교 본부 사립아너스학부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전자우편 xun313@changwon.ac.kr

성 명 김태식
소 속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전자우편 tsk@changwon.ac.kr

Abstract

The Role of Korean Universities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 Operation and Educational Innov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 Division -

Kim, Jeong-hoon · Kim, Tae-sh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n universities are adapting to globalization by expanding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le these students enrich campus diversity, they face challenges in language, academics,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international student divisions can enhance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ailored curricula, bilingual support,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y analyzing cases from the U.S., Australia, and Japan, it suggests strategies for Korea, including flexible academic pathways and expanded student service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tudent divisions can boost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foster an inclusive academic environment.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 division,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for higher education, global competitiveness, educational innovation

투고일 2025. 02. 18 / 심사일 2025. 03. 12 / 게재확정일 2025. 03. 12

